



월드컵 기간에 맞춰 처음으로 실시한 한국전통불교문화 체험사업은 외국인들의 탄성을 자아낼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지난 5월 11-12일 직지사에서 열린 주한 외국사절단 초청 템플스테이 체험행사에서도 참가자들이 탐미미를 하고 있다.

한국불교·전통문화 세계화 앞당겨

"2002년 한일 월드컵 성공의 숨은 주역은 붉은악마의 질서정연한 거리 응원과 33개 사찰이 한국 전통문화의 본래면목을 세계에 알린 템플스테이다."

템플스테이 결산

남궁진 문화관광부 장관은 최근 문화관광부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템플스테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처럼 월드컵 기간에 실시한 템플스테이 사업은 짧은 준비기간과 홍보기간, 정부의 부족한 예산(10억7천만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한국불교 및 한국전통문화의 세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템플스테이 사업은 월드컵이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행사를 통해 한국불교의 국제화를 앞당기는 자극제가 되었다는 의견이 많다. 외국인들에게 전통 체험문화 관광의 모델과 불교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불교용어 번역과 통역인력 확보를 통한 국제포교의 기반을 구축

한 것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아울러 사찰 시설의 개보수를 통해 외국 관광객 및 국민과 신도에게 사찰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는 계기로 마련됐다. 이는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국민 여가 문화의 선양과 신도들의 새로운 신행형태를 제공하는 사찰수련회 및 주말수련회 등의 상설화를 가능케 하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여론이다. **● 얼마나 참석했나** 6월 25일 현재, 전국 33개 사찰에서 체험했거나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 중 '월드인' 예약객은 543명, 월드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사찰을 찾

불교용어 번역 등 국제포교기반 구축 '성과' 관련기관 협조 안돼 참가자 적어... 총 850명 문화부장관 "사찰체험 관광자원화" 지시

아 체험하고 나간 관광객은 290여 명으로 템플스테이를 체험한 관광객은 모두 850여명으로 집계됐다. 국가별 참여자 수는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순이었으며 외국인들이 많이 참여한 사찰은 해인사, 전등

사, 약천사, 송광사, 봉오사, 무각사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 1박2일 또는 2박3일 일정으로 사찰에서 숙박한 체험자들 외에 사찰 경내를 둘러 보거나 다도 등 불교문화 체험프로그램을 경험한 외국인은 약 5,000

명으로 추산된다. **● 체험자 반응** 체험자들의 대다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부분적으로 취향된 실존지 및 소감문에 의하면 '매우 훌륭한 프로그램'이라는 찬사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있다. 관문사에 온 캐나다 청년은 "일본 선만 알다가 한국 참선을 처음 알게 되었다"며 출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전등사를 찾은 캐나다 청년 두 명은 "참선이 눈물날 정도로 좋다"며, "귀국하면 선센터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체험자 중 미국의 채식주의자 캘리 여사는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전등사, 감사, 삼광사를 돌면서 각각 2박 3일 정도의 불교 문화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캘리 여사는 "오는 10월과 내년 4월에도 다시 한국을 찾아 템플스테이에 참여할 것"이라며 월드컵 기간 후에도 계속 유지하기를 당부하기도 했다. 템플스테이는 월드컵 행사 중 문화행사의 하나로서 국내외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아, 불교 포교에 큰 역할을 했다. (본지 375호 2면 기사 참조) **● 참가자 부족 아쉬움**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들은 짧은 준비 기간으로 인한 중단됨, 사찰, 정부의 원활한 협조관계 및 준비의 부족과 이로 인한 참가자 수 부족을 이번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월드컵 관광객 보다 국내 외국인이 절반 정도 참여한 것도 이를

반증한다. 참여자가 10명 미만인 몇 개 사찰에서는 외국인 1-2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10여명이 준비하는 경우도 벌어졌다. 운영자들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 5-10명 이상 단체 접수를 받을 경우 이런 문제점을 해소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 차원의 도움은 예약 시스템(worldinn.com) 마련과 외교사절단 유치 등 부분적인 선에 머물러, 향후 더욱 많은 인적, 물적 지원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했다. **● 아시아간담회 템플스테이** 통도사, 범어사, 삼광사 등 부산 지역 템플스테이 실시 사찰들은 오는 10월 열리는 아시아간담회 때도 템플스테이를 열 계획이다. 나머지 30개 사찰도 템플스테이 상시 체제화에 동참하고 있으며, 예산 수척사, 강릉 낙산사, 서산 부석사는 추가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6월 30일 마감되는 템플스테이는 마감이후에도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여러 곳에서 진행된다. 부산 삼광사가 포항공대 외국인과 대구 신학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준비 중이며, 감사도 10월 21일부터 6박7일간 미국인 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송광사도 9월부터 독일인 20-30명의 예약을 받는 등 상설화하기로 했다. 일부 사찰은 주5일제를 대비한 상설 주말수련회도 검토 중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nia.com

사찰의 公的기능 정책 반영 절실

국가정보화 사업 소의 - 원인과 대책

정부는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인 'CYBER KOREA 21'에 따라 정부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500여개 중점사업을 계획 또는 실시해오고 있다. 그 가운데 직접적으로 불교와 관련된 사업은 한글대장경 전산화 사업 단 한건. 그만큼 불교는 국가정보화사업에 소외되고 있다. 불교가 이처럼 국가정보화에서

소외받고 있는 주된 원인은 지리적 한계 때문으로 요약된다. 산속에 위치하고 있는 사찰에는 초고속 통신망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초고속통신망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지역정보저점에서 4km를 넘어설 경우 서비스 품질도 현격하게 떨어지는 등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정보화 사

업은 수익성은 없지만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에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공공서비스적 성격이 짙다. 초고속국가망은 전국 주요 도시와 중·소도시간의 광케이블 중심의 ATM교량망으로 연결하여 행정기관, 학교, 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원을 투자하여 구축한 기간망이다. 사찰은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지역 문화 거점이라는 점에서 공공기관과 같은 공적 역할을 수행하기에 초고속국가망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가가 보편적 서비스를 정책적 조로 삼고 있다면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찰에도 정보인프라를 구축해주어야 한다는 것.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는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있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요금

으로 제공되는 필수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정보통신부 기획총괄과 김상부 사무관은 "사찰이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데 일부만 동의한다"며 "현재 국가도 통신망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만큼 직접적으로 초고속망을 설치해 주지는 못하지만 불교계가 한복소리로 KT(한국통신)에 공식 요청을 한다면 가능한 일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화사업에 불교가 소외받

책적인 사업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 정보화담당관실 김영삼 서기관은 "현재 국가문화유산정보화사업 등 불교와 직간접적인 정보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아직 정보화사업이 초·기단계인 만큼 앞으로 사이버 석굴암 등 불교자원을 가치있는 정보로 만들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차원의 노력 못지않게 불교계

"사찰은 지역문화거점 '고속망' 설치돼야" 스님·종단관계자 등 정보화 마인드 시급

고 있는 것은 정책수립과정에서 불교의 역사 문화적, 교육적 중요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문화의 저변에는 불교문화가 그 근간을 이루고 있고 국가문화재도 60-70%가 불교문화재일 정도로 불교의 영향력은 막대하다. 그러나 불교를 한국문화의 근간으로 인정은 하지만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화 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의지와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정

내부에서도 정보화 마인드를 고양 시키려는 기류가 형성되어야 한다. 불교계의 정보화 현주소가 열악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우선 단위사찰이나 종단을 이끌고 있는 스님과 재가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정보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또한 불교의 문화적 가능성을 더 시뮬레이션 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각 종단의 지도층에서도 정보화 마인드를 가지고 종적을 수립하는 등 정

◆문화관광부 2003년 문화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안)

사업 분야	주요 추진사업
문화예술정보화	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다국어 시·미·예 한국문화관 구축
문화유산정보화	국가문화유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전통사찰 관련내·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문화산업정보화	출판유통 현대화 사업 종합영상자료 DB 개발
관광정보화	관광정보화 사업 종합관광정보시스템 구축
체육정보화	국민체육진흥 정보화사업 추진 생활체육 정보화사업 추진
청소년정보화	청소년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및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도서정보화	도서정보화사업 21세기 세종계획
정보화여건조성	저작권관리 등 록시스템 개발

보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더불어 불교의 자원을 현대에 맞는 문화 콘텐츠로 만드는 일도 시급하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불자 기업이나 불교단체 등이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 정부에 불교정보화 사업을 제안하고 불교문화의 잠재가능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동국대학교 전자불전연구소 소

장 보광스님(선학과 교수)은 "동국대는 이미 사이버 박물관을 개설했고 콘텐츠 전문가 양성을 계획하고 있다"며 "불교단체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유용한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국가에서도 충분히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불교계 단체인들의 보다 많은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두식 기자 docki@buddhania.com

인생을 바꾸는 아름다운 힘

아바타코스

당신 마음의 무게는...?
천근, 만근??
깃털처럼 가볍게 사십시오!

지금 당신을 진정한 행복/풍요/건강으로 초대합니다.

입지만 강력한 마음수련 여행 - 해안스님과 함께 하십시오.

해안아파트 센터 011) 606-1976 www.haesanavatar.com
세이아파트 센터 02) 782-0022 www.sayavatar.com

풍산한식동기기와 가격을 대폭 내렸습니다

평당 54만원에서

42

만원으로 대폭 인하
(100평 기준, 시공비 포함)
· 압기와 : 3,580 → 2,380원 / 장 (33%인하)

풍산한식동기기는 전통을 소중히 하는 사찰, 고건축물 등 한식 가옥과 주택의 미를 추구하는 기념 건축물, 일반 가옥 등에 잘 어울리는 지붕재입니다.

풍산한식동기기와는 이런 곳에 시공하면 좋습니다.

- 세찬 비바람과 추위로 기와가 날아가거나 동파가 심한 곳
- 건물 지반이나 골조가 약해 지붕의 하중을 줄여야 하는 곳
- 한국의 전통미와 실용성이 필요한 건물
- 유지보수 비용을 최소화 해야 하는 건물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부품 하나 하나마다 새겨진 풍산한식동기기와 마크를 확인하십시오.

풍산한식동기기는 당사 지정 전문시공사에서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 풍산지정 전문시공사 { 보령금속(서울):011-204-6238
성원금속(서울):011-445-7811
세주원금(청주):011-401-5312

문의: (주)풍산 건축자재 담당 02-3406-5114, 011-898-9720

주식회사 풍산 www.poongsan.co.kr

세계 최고 품질의 풍산한식동기기를 보다 만족스런 가격에 경험하십시오.